

지역 중심 상생 의료체계 확립 및 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구축 방안 논의

- 「제12차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·지역의료 전문위원회」 개최(11.15.) -

정부는 11월 15일(금)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(이하 ‘의료개혁특위’) 산하 「전달체계·지역의료 전문위원회(위원장 신현웅)」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, ▲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, ▲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.

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개최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한 ‘지역·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’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구조전환을 확산하여 2차 병원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. 특히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육성하고,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특화 기능을 갖춘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.

또한 고령화에 따른 복합·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한 기능적 일차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성과 기반 보상체계 등 지불제도 혁신에 대해서도 향후 전문위 논의를 통해 검토해나기로 하였다.

‘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’에 대해서도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. 인구 고령화,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중환자실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진료협력팀을 이용한 지역 내 중환자 진료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검토하였다.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, 진료협력팀 대기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인력 및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.

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많은 병원들이 참여하면서,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” 라며, “2차 병원 육성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후속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여,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<붙임> 제12차 「전달체계·지역의료 전문위원회」 개요

담당 부서	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	책임자	과장	유정민 (044-202-1870)
		담당자	사무관	성경은 (044-202-1873)
		담당자	사무관	유규연 (044-202-1877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일 시: '24. 11. 15.(금) 10:00~12:00

참석자

- (위원회) 특위 위원, 전문위원 등
- (정부) 의료개혁추진단 단장·부단장, 의료체계혁신과장, 보건의료정책과장, 지역의료정책과장 등 5인

논의안건

-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
- 지역·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
- 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

진행순서(안)

시간		주요 내용	비고
10:00~10:05	'5	회의안내	의료체계혁신과장
10:05~10:10	'5	인사말씀	노연홍 특위위원장 신현웅 전문위원장
10:10~10:40	'30	안건 발제	복지부, 전문위 위원
10:40~12:00	'80	종합토의	참석자
		폐회	신현웅 전문위원장